

장성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추진

황룡강 힐링허브정원·장성역 기차갤러리에 체험공간·작품 마련

지역 예술가 협업...주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미술작품 설치 등

장성군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장성군이 주관하는 '우리동네 미술'은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성 고유의 정서에 부합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장성군은 4억원(국비 80%)의 예산을 투입해 '힐링허브정원에 날개를 달

다', '장성역 기차갤러리의 재탄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의 무대가 될 힐링허브정원은 황룡강 일원에 조성된 테마정원이다. 아름답게 조성된 메리골드, 라벤더, 한련화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은은하고 달콤한 애플민트, 체리세이지의 향기도 한껏 만끽할 수 있다.

또 유럽풍 풍차와 아기자기한 집들로 꾸며져 있어 동화 속 나라를 연상케 한다.

장성역 기차갤러리는 2009년 흥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작년부터 (사)한국미술협회 장성군지부에서 상시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성군은 작가팀 선정과 관련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작가팀은 염색체험, 우드버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타이아트·미디어아트 등 공공미술작품의 설치·



장성군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을 추진한다. 사진은 장성역 기차갤러리(좌), 힐링허브정원(우)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이다.

장성군은 "엘로우시티 장성의 아름다움을 더해줄 훌륭한 공공미술작

품의 탄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위드 코로나 시대' 농업인 교육 돌파구

흥미진진·감동가득...재미있게 배우는 영농교육

화순군이 코로나19로부터 교육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 교육을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지난 7월부터 농업인대학 13기 과정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추진해왔다.

7월 말 방역단계가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자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을 재개했으나,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에서 확산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온라인 교육

에 이어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농업인대학 수강생들은 강사가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교육 강의를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수강할 수 있었다.

실시간 화상교육은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 실시간 소통의 장점을 더한 방식이다. 강사와 교육생들이 동 시간대 같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론 교육부

터 질의응답, 의견 공유까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우선 9월 중 품목별 기술교육(토마토, 미생물 과장)이 화상교육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전화, 밴드 공지사항, 메일 등을 통해 교육생들이 수강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교재를 배부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벼 침수 피해 지역 방제

총 1206ha...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혹명나방·벼멸구

곡성군이 지난 8월 6일부터 8월 8일 내린 집중호우로 벼가 침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긴급방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60일 가량 지속된 유난히 긴 여름장마로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이 많이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 초 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엄청난 면적의 논이 침수되기도 했다. 또한 8월 중순은 벼 꽃이 피고 이삭이 여우는 시기로 벼 일생 중 병해충에 가장 취약할 때다. 이에 따라 병해충 확산 우려와 수확량 감소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긴급방제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 벼 병해충 긴급방제에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긴급편성한 예비비와 군 자체 추경예산을 합해 1억 2천 7백만 원이 소요됐다. 군은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입면 지역농협과 연계해 광역방제기 및 드론을 동원해 방제를 추진했다.

긴급 방제 벼 재배 면적은 총 1,206ha에 이른다. 침수 신고가 들어온 624ha에 옥과농협이 자체 추가한 582ha를 합한 면적이다. 방제 대상 병해충은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이었다. **곡성=김광희기자**

구례군, 생활 SOC 복합화사업 가족센터 건립 국비 15억원 확보

다양한 가족유형...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구례군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사업'에 구례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족센터는 가족, 돌봄, 다문화,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

공하는 공간이다. 기존 운영 중인 구례군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노인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과 연계한 다양한 가족 복합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는 구례읍 봉남리 2번지 일원

에 연면적 1천375㎡,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소통공간, 다함께돌봄센터, 상담교육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읍,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화순읍 화순읍행정복지센터(읍장 문형식)는 지난 3일 화순읍 고인돌전통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

역지침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화순읍장을 비롯한 화순읍 직원 30여 명이 캠페인에 참가해 마스크를 나눠주며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 위생수칙(거리두기, 손 씻기, 신체 접촉 자제 등) 실천을 당부했다.



문형식 화순읍장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코로나19 예방 수칙 당부

타지역 방문 자제·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민 협조 요청

담양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9월 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는 20,842명이며,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담양군은 최근 첫 확진자가 나왔으나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으로, 군은 인근 광주광역시와 생활권에 있는 특성상 지역사회에 언제든지 전파될 위험이 있어 철저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특히 주민들에게 당부간 불요불급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이 당분간 군을 방문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마스크 착용, 외출 및 활동 최소화, 손 씻기와 손 소독, 거리두기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형식 군수는 "감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GWANGJU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